

지역 메아리

이서거점센터 개소·현판식

완주군, 해충방제 고미교란제 지원

완주군이 과수원 해충방제에 효과적인 고미교란제를 지원한다.

5일 완주군은 이달 초 관내 52ha의 과원을 대상으로 신회와 수확기 과실에 큰 피해를 입히는 복숭아순나방과 심식나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 할 수 있는 고미교란제 6만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미교란제는 나방 알컷이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분비하는 페로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수컷 나방이 암컷을 찾는 데 혼선을 일으켜 정상적인 교미를 방해하고 일을 낳을 수 없게 하는 친환경 약제다.

고미교란제는 복숭아순나방뿐만 아니라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유리나방 방제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농가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인감증명 제출요구 감축

완주군이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을 줄인다.

5일 완주군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달 중순까지 군 조례 및 규칙, 관행에 근거해 불필요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등을 전수조사해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한다.

인감요구사무 감축 추진은 지난 2009년 9월 '브랜드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인감요구사무 209개 중 125개(60%) 사무가 감축됐으나 여전히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의 사무가 남아있어 이를 완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생활체육교실 무료 실시

김제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를 통해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18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은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종목별교실사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검도, 궁도, 씨름, 유도, 하키, 합기도, 태권도, 킥복싱교실 등 8개소에서 주 5회 1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김제시체육회 홈페이지(www.gimjessport.or.kr) 무료교실프로그램에 올린 2018 생활체육교실 상반기회원모집을 내려 받아 각 교실별 지도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모삼종)는 5일 이서면 혁신도시 민원센터 내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자원봉사 이서거점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자원봉사 거점센터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도 게재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1월부터 이서면과 간담회를 통하여 이서 지역 내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자원봉사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거점센터를 준비하게 됐다.

개소식은 완주 농악단 풍물패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거점센터 상담가(자원봉사자 6명) 소개,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박숙자 완주교육장, 주영환 이서면장, 각 기관·단체장, 지역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 자원봉사 거점센터는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는 한편 봉사활동의 손길이 필요한 수요자를 찾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며 꾸준한 봉사활동과 1365 시스템을 통한 봉사실적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홍보 활동 등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 상담가는 이서면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자원봉

사자들로 구성되어 1365 자원봉사 포털 교육은 물론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봉사하게 된다.

박성일 군수는 "오늘 개소하는 거점센터를 통해 혁신도시인만큼 혁신적인 완주군 자원봉사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봉사자의 손길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최대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자원봉사 이서 거점센터'는 전북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소되는 거점인만큼 앞으로 전라북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롤모델이 될 전망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보건의 날 기념 행사

김제시보건소는 5일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보장 함께 건강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행사를 가졌다.

제46회 보건의 날 행사 기념식은 새만금컨벤션 2층 골드라운지에서 이후천 김제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시정홍보 동영상 및 보건활동 성과 동영상 및 건강생활실천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다.

김제시보건소는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해

올해 보건의 날 주제는 "국민건강보장 함께 건강하자"이며, 보건의 날 관련 단체 회원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시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과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시장 표창 2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출산 전후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 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덕연 완주군이장 연합회장, 완주군의원 출마

김덕연(56) 완주군이장 연합회장이 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의원(라선지구 6개면)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무소속 김덕연 예비후보는 이날 "완주군의 위상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 성공적인 '규모의 균형'과 '군정의 감시자'로서 또한 완주군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제도·시책은 소원도우에 불과하다. 업적 쌓기용, 생색내기용 사업, 군민 뜻을 거스르는 시책은 명백히 지탄받아야 한다"며 "군의원에 당선된다면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운주·고산·동상 계곡 여름철 장사를 한시적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말풀제 개편과 더불어 인근 축사도 철거 ▲'꽃감가격 안정화와 꽃감축제 지속 유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

김제모악산축제 6일부터 ~ 8일까지

김제모악산축제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김제 금산사(모악산) 주차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 11년차를 맞는 김제모악산축제는 2008년부터 '모악산 명산 만들기' 일환의 '모악산 벚꽃잔치'라는 이름으로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에서 열렸던 벚꽃축제를 2014년 제7회 축제부터 '김제모악산축제'로 변경 추진하게 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벚꽃'이라는 볼 축제의 유사성을 극복하고 '모악산'이라는 김제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김제시의 차별화 일환이며, 통일시기에 난립하는 볼 축제 개최기간과 벚꽃 개화 시기의 일치 어려움도 고려됐다.

또한 이번 제11회 김제모악산축제는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구제역, 2017년 AI 확산 등으로 취소된 후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으로 열린다.



김제모악산축제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김제 금산사(모악산) 주차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김제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30일 전인 3월 8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전 실과소·읍면동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사장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축제장을 방문하는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2년 만에 개최되는 제11회 김제모악산축제는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축제로 전국 여느 축제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며,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모악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영택 김제시의원, 의원직 사퇴·도의원 출마

김제시의회 임영택 의원은 5일 제217회 임시회 개최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와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표를 던졌다.

이날 임영택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시민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초선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헌신과 섬김의 정치를 실천해 왔다"며 "시민의 대변

자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직중심 의정활동을 펼쳤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죄송한 맘 금할 길 없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임 예비후보는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김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김제! 를 만들어 내고향 김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